

# “韓國工業化의 開幕을 알린 불길은 오늘도 타오르고 있다”

26萬톤짜리 油槽船이 페르사灣으로부터 18日間 실어온 原油는 地下送油管을 통해 精油工場으로 옮겨지고, 여기서 벵커C油, 輕油, 휘발유, 石油化學원료등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生産된다.

金 乾 洽 〈油協·弘報室長〉

**蔚**山市 古沙洞 110번지一. 蔚山灣을 굽어보는 1백60만평의 대지 위에 자리잡은 油公의 정유공장은 곧 우리나라의 經濟發展과 工業化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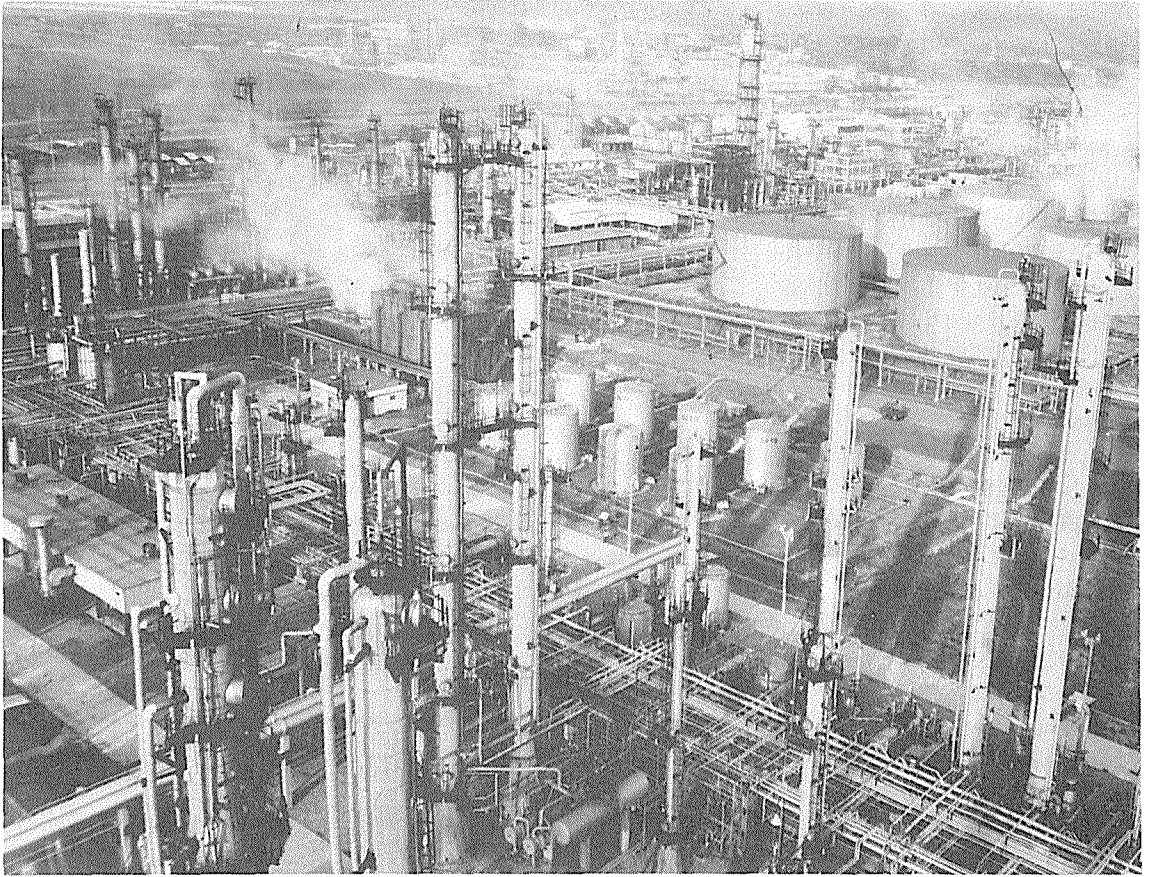
한 방울의 기름도 생산되지 않던 우리나라에 石油産業의 개척자로서 지난 62년 10월에 창립된 油公은 全量 수입에 의존하던 石油에너지의 자급자족과 조국근대화를 위한 經濟開發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용효과를 증대하는데 크게 공헌해 왔다.

20년전까지만 해도 황량하기만 했던 蔚山灣에 韓國近代化의 고동을 알리는 油公 精油工場의 증류탑이 그 위용을 드러내기까지의 얘기는 드라마틱하다.

5·16혁명 직후 정부는 제 1차 經濟開發 5 年計劃을 수립하면서 石油에너지의 안정공급이 없이는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精油工場건설을 최우선사업으로 채택하고, 62년 1월 閣議에서 大韓石油公社설립을 의결했다. 설립 당시의 불입자본금은 불과 6억2천5백만원, 공장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外資와 기술은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 石油類 需要는 주로 AID 원조자금으로 외국에서 제품을 사다 메꾸는 실정이었으므로 축적된 技術과 경험이 있을 리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油公의 株式 일부를 외국 메이저에 넘기는 條件과 차관제공을 전제로 外國合作先 교섭에 나섰다. 걸프를 비롯, 엑슨, 모빌등 몇몇 美國系 메이저들이 일단 관심을 보였으나 움직임은 극히 소극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韓國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했고, 우방 美國의 投資家들마저 對韓投資를 주저하던 시기였다.

後進國에 자본진출을 하는 경우 경영권을 쥔 정도가 아니면,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 메이저의 生理다. 이들은 위험부담까지 고려, 우리측이 받아 들이기 힘든 條件들을 제시했고, 차관제공에도 인색했다. 그러던 중 걸프로부터 파격적인 條件이 제시됐다. 株式참여는 25%만 하고, 2천만 달러를 長期借款으로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25% 株式대금이 5백만 달러, 합쳐서 2천5백만 달러였다. 外換保有高가 1백만달러를 밑돌 당시,이 돈은 실로 엄청난 액수였다. 게다가 「精油工場만은 우리



우리나라 精油産業의 파이오니어, 油公의 울산정유공장

손으로」라는 民族主義의 색채가 짙었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25%만의 자본참여도 반가운 제의였다.

63년 11월 合作投資계약과 借款계약, 그리고 原油供給계약, 해상운송계약 및 기술용역계약 등 8개의 기본협정이 체결됐다. 이 땅에 外國合作企業 제 1호가 탄생한 것이다. 이어 63년 3월 플루와社(Flour Co.)와 精油工場도급 건설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공, 64년 4월 日産 3만 5천 배럴의 蔚山 精油工場이 정상가동을 개시했다. 물새가 날고, 雜草가 우거졌던 蔚山 배화강변 바닷가에 韓國工業化의 개막을 올리는 불길의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 精油工場은 정부가 제 1차 經濟開發 5 年計劃 기간중 蔚山市를 공업단지로 선포한 후 처음으로 건설한 공장이다. 62년 당시 蔚山邑과 蔚州郡을 합친 人口가 고작 3만 5천명이던 것이 지금은 40만명이 넘는 공업 도시로 성장한 것만 보아도 蔚山공업단지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蔚山공업단지의 발전은 곧 韓國工業化를 상징한다. 현재 이 공업단지에는 1백54개 공장이 가동 중이다.

경제성장의 속도에 비례하여 이 공장의 정제능력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經濟의 고도성장과 油類수요의 급증에 발맞추어 그동안 확장공사를 거듭하여 현재는 原油處理능력 하루 28만 배럴, 즉 약 22만드럼을 생산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精油施設을 갖추게 되었다. 또 앞으로의 景氣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15만 배럴을 증설, 原油처리능력을 43만 배럴로 확장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한편 제 2차 經濟開發 5 年計劃기간인 70년 5월 에 石油化學工業의 일부인 방향족 추출장치를 완공,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基礎合成原料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71년 10월부터는 石油化學工業의 모체가 되는 나프타分解센터의 건설에 착수, 72년 10월말부터 정상가동을 시작했고, 에틸렌 年10만톤 규모였던 이 공장을 77년말 年15만톤 규모로 확장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이 나프타分解센터에서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石油化學 基原料를 비

못하여 사이크로 핵산, 중질분해유 및 열분해유등을 생산, 이 工場에서 남서쪽에 인접해 있는 蔚山石油化学工業團地의 각 계열공장에 지하송유관을 통해 직접 공급해 주고 있다.

精油工場이 다른 공장과 다른 특징이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製品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조선으로 들어온 原油로부터 工場에서 생산된 모든 製品이 지하 송유관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工場이 실제 가동중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가 없다.

나프타分解센터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製品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합성수지, 합성세제, 합성섬유등 각종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基礎原料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체기술로 개발한 年産 1만톤 규모의 노말액산 分離工程과 2만9천톤 규모의 용제공장을 갖추고 食用油 추출과 石油化学工業用 특수용제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68년 12월에 준공된 運轉유배합시설에서는 1백20여종에 이르는 각종 運轉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年間 生産能力은 53만 드럼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工場시설은 1백16만평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에 수용되어 있으며, 4조3교대로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이 工場에서는 주로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등 中東地域의 原油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國籍을 가진 原油船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유조선이 케르사灣에서 蔚山까지 약18일간의 운항기간을 소요하여 原油를 수송하고 있다.

유조선에 실려온 原油는 工場의 남쪽에 위치한 蔚山灣 앞에 설치된 2개의 原油하역시설에 原油船에 계류하여 하역하고 있다. 여기에는 26만톤의 유조선이 자유로이 계류하고 있다.

이곳에서 하역된 原油는 海底송유관을 통해 해안에 설치된 原油저장탱크로 옮겨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工場까지는 地下송유관을 통해 송유되고 있다. 이와 같이 工場에 들어온 原油는 工場제조시설에서 분류工程, 불순물제거工程, 품질개선, 추출 및 분리 그리고 混合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製品이 생산되고 있다.

지난 해 이 工場의 製品生産比率를 보면, 벙커C油가 48%로 가장 많고, 다음에 輕油 23%, 石油化学 기초 원료 6%, 휘발유, 燈油 및 나프타가 각각 5%, 重油 3%, 제트油가 2%, 기타 제품 3%의 順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율은 국내 각종 油類의 소비구조와 대략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내자를 따라 시설을 돌아 보니 곳곳에 거대한 탱크가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용량의 탱크는 75만 배럴짜리도 있는데 이는 서울 정충체육관의 2배에 해

당하는 크기라니 그 규모를 상상할만도 하다.

한편 油公에서는 서울, 釜山, 仁川, 原州, 大田, 蔚山, 大邱, 光州, 馬山 및 濟州 등의 전국 주요 지역에 저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工場에서 생산된 각종 石油제품은 트럭, 철도, 송유관 및 연안유조선등의 수송수단을 통해 全國各地에 공급되고 있다. 작년도 수송비율을 보면, 유조트럭으로 6.6%, 철도수송 18.4%, 파이프라인과 유조선에 의한 해상수송이 각각 37.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海上출하시설로는 5천톤급 유조선이 계류할 수 있는 전용부두와 工場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울산만 입구에 2만5천톤급 유조선이 계류할 수 있는 제2 전용부두 시설등을 갖추고 있다. 이 工場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은 各地方 代理店을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유소 유류업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油公은 제품의 판매를 위해 서울, 仁川, 原州, 大田, 大邱, 光州 및 釜山 등지에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全國 주요도시에는 판매원들이 주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工場에는 自家발전시설, 보일러시설, 정수장, 실험실, 소방시설등의 부대시설과 의무실, 독신

'64년에 日産 3万5千배럴로 稼動을 개시한 韓國最初의 울산精油工場은 현재 日産 28万배럴의 原油處理施設을 앞으로 곧 43万배럴로 大幅擴張, 國內최대는 물론 世界頂上級으로 發展하게 된다.

료, 아파트 및 사택, 식당, 수영장, 오락시설등의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본 부건물 옆에는 후생관工事が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본부건물도 넓고 비좁아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시설을 우선적으로 세우려는 崔鍾賢社長の 특별지시에 따라 후생관을 앞당겨 착공한 것이라고 안내자는 설명한다. 이 후생관은 5백명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食堂을 비롯하여 휴게실, 오락시설등을 갖추게 되며 오는 12월까지 완공시킬 예정이다.

이와 같이 油公은 지난 62년 10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核心산업으로 설립된 이후 良質의 石油 및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공급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그 동안 꾸준한 技術蓄積과 原油導入의 안정화로 계속 성장 발전해온 油公은 지난 80년 8월 合作先이었

던 걸프사가 철수한 후, 同年 11월 28일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鮮京이 걸프持分 50%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同年 12월 23일부터 순수한 국내자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崔鍾賢사장은 油公의 새로운 進路를 이렇게 말한다.

『油公은 앞으로도 精油·石油化学분야의 기술축적과 경영의 합리화, 原油導入先의 장기적 안정화등으로 良質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한편,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정유회사를 목표로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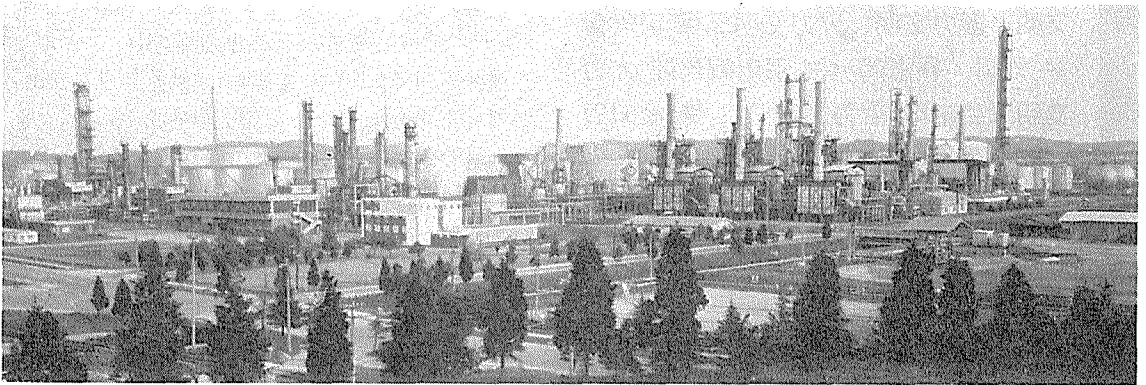
사실 지난 20년동안 쌓아 올린 기술은 오늘날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지난해 8월, 合作先 걸프사의 철수 후, 蔚山정유공장은 숙련된 우수한 우리 기술진의 손으로 아무 차질없이 조업되고 있다.

**또** 지금도 직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社内직업훈련소를 설치, 자체人力開發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의 기능공양성방침에 호응하여 해마다 60명 이상의 외부기술인력에 대해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페트로민石油会社 요원 1백20명이 이 공장에서 2년간 기

술연수를 받기 위해 내한함으로써 油公의 聲譽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들 요원은 어학훈련이 끝나는데로 9월부터 이 공장에서 본격적인 기술훈련에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이 工場은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 生産性제고, 原価절감, 종업원복지향상등 企業의 内実化를 기하는 한편 지역사회 새마을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農漁村 「희망의 다리놓기 運動」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실시되는 아름다운 운동으로서 이미 전국각지에 10개의 교량을 가설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저희 工場에서 자랑할 것이 많지만, 2 가지만 말하면, 하나는 工場의 안전조업을 위해 노력한 결과 18차의 무사고 100万人時 안전기록과 1차 800万人時 연속 기록을 달성함으로써 우리 공장 조업기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과시한 点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工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생물학적 배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등 현대적 公害방지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이 工場 어느 간부의 말이다.\*



油公울산정유공장全景 ①

油公의 油槽船에서 送油管을 통해 原油를 하역하는 光경 ①

